



문학과 영화 사이, 브라쉬가 그린 독일 현대사

토마스 브라쉬 대표작 특별 상영회·시네토크 '주목'
광주독립영화관 4일·목포아트시네마 17~18일 선배

독일 분단 전후 베를린의 혼란과 범죄, 무너진 사회질서 속 인물들을 삶을 통해 불안한 시대의 공기를 포착한 '철의 천사', 흑백 화면과 날카로운 시선, 거칠지만 시적인 분위기는 토마스 브라쉬 특유의 영화 언어가 형성된 출발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독일 현대사의 균열과 개인의 상처를 집요하게 응시한 토마스 브라쉬(1945~2001)는 시인과 소설가, 극작가, 번역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독일 현대사를 둘러싼 기억과 폭력의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1945년 영국 요크셔에서 독일계 유대인 망명자

부도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947년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돌아갔다. 동독 체제의 억압과 검열에 맞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반대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고, 1976년 동독 반체제 가수 볼프 비어만의 국적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뒤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의 삶 자체가 독일 분단과 냉전, 전후 사회의 긴장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브라쉬는 정치적 현실을 직접적인 구호로 옮기기도, 그 안에서 흔들리는 개인의 욕망과 좌절, 상처 입은 관계로 시대를 비추었다. 그의 영화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국가와 체제,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인간의 감정

과 삶의 감각으로 다뤘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광주와 목포에서 그의 영화를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특별상영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특별 상영은 토마스 브라쉬의 책 '카르고'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번역자이자 이오 에디션 대표인 라베올과 김태용 작가, 1인 아트하우스 OTT 플랫폼 지하실이 함께 협력해 마련됐다. 먼저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4일 '철의 천사'와 '승객'을 상영한다. 이번 특별 상영의 출발점인 '철의 천사'는 1981년 제작된 브라쉬의 장편영화 데뷔작이다. 1948년 베를린 상공을 떠다니는 서방 비행기의 폭음 아래 갠 이야기를 다룬다. 1988년작 '승객'은 나치 시대와 홀로코스트의 기억, 전후 독일 사회의 책임 문제를 다룬다. 나치 시절 유대인 강제 수용소 생존자 다 미국으로 망명해 영화감독이 된 코르펠트가 과

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기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계속 흔든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작품이다. 영화 상영 뒤에는 김태용 작가와 김형중 문학평론가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목포아트시네마에서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대표작 4편을 연달아 선보인다. 초기작 '철의 천사'부터 '도미노', '메르세데스', '승객'까지 시대와 형식이 다른 작품을 통해 브라쉬가 문학적 감수성과 정치적 현실 인식을 영화 언어로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보여준다. 1982년작 '도미노'는 사랑과 욕망,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인물들을 통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내면의 분열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담아낸다. 1985년작 '메르세데스'는 독일 전쟁 기술의 상징물인 자동차를 소재로 관계와 욕망, 소통의 불가

능성을 보다 압축된 형식 안에서 탐색한다. 브라쉬는 이 작품에서도 인물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끝내 닿지 못하는 순간들을 포착하며, 삶의 균열을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시적인 감각으로 그린다. 영화 상영 뒤 김태용 작가, 라베올이 참여하는 시네토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브라쉬 영화의 시대적 맥락과 작품 세계, 독일 영화사 안에서의 위치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태용 작가는 소개글에서 "토마스 브라쉬의 글에는 영화적 기법들이, 영화에는 문학적 언어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 영화적 읽기와 문학적 상상의 문이 열린다"며 "21세기의 뿌연 눈을 씻고 들여다보면 모든 게 정치적 사안이고, 정치적 대결이고, 정치적 탐구처럼 보인다. 토마스 브라쉬의 영화와 글을 만나게 될 분들의 반응이 몹시 궁금하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작가의 전시 보며 '작품 세계' 심층 조명 기회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는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연구 프로그램이자 지역 예술 현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의 다양한 창작공간이 함께하는 기획으로 마련된 'GB 작가탐방 2026'(GB Artist Focus 2026)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오는 9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발산마을의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작가의 예술적 실험을 펼쳐 보이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박아론 작가와 송가현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PD)의 공개 대담으로 진행된다.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에서 진행 중인 박아론 작가 개인전 '남겨진 것들 사이에서'(6.30~7.12) 전시를 함께 둘러보며, 작가가 오랜 시간 이

어온 창작의 흐름과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박아론 작가는 돌·나무·금속 등 물질의 구조와 상태 변화를 탐구하는 설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물질이 형태를 상실하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변화하는 인식의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GB 작가탐방 2026' 박아론 작가편 진행 9일 오후 4시 서구 공유공간 뽕뽕브릿지 송가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PD 참여



박아론 작가

'GB 작가탐방'에서는 이번 전시를 바탕으로 작가의 작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돼 왔는지를 조명한다. 특히 부유와 반사, 비물질적 감각으로 연결되는 작업이 공간의 시간성 안에서 비가시적인 존재 드러내는 양상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과 창작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 신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내 신청양식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참여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은 광주비엔날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후 공개된다.

'GB 작가탐방 2026'은 정승원 작가(예술공간 집)를 시작으로 이조흠 작가(오버랩), 윤태준 작가(스페이스 DDF), 권승찬 작가(이강하미술관), 정명용 작가(지구발전오라), 설박 작가(호랑가시나무창작소) 등 순

서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유공간 뽕뽕브릿지'는 광주 서구 발산마을에 위치한 독립 예술공간으로, 신진예술가 발굴과 창작 실험을 지원하며, 공간과 자원의 공유를 통해 예술 생산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 생태계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수어와 음악 잇는 공감의 무대

연극 '내 모든 걸' 1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가 무대에 오른다. 말 대신 손짓이, 소리 대신 음악이 마음을 잇는 연극이 광주 관객을 찾는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2026 우수공연초청기획 첫 번째 작품으로 이연컴퍼니의 연극 '내 모든 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공연예술 지역유동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소개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작품은 하루아침에 청각을 잃은 천재 지휘자 '건우'가 새로운 소통의 언어인 수어를 만나 삶과 음악을 다시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긍정적인 예나



연극 '내 모든 걸'

자를 지닌 '이유'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해 가는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무대는 수어와 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연출이 특징이다. 언어와 소리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게 한다. 특히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을 돌아보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다. 삶의 위기 앞에서도 혼자자 아닌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관객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선사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공연초청기획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90분(인터미션 없음)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으로 예스24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인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관람료 전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황해운 기자 nab@gjdream.com



바리오스

매주 새로운 선율...목요일 밤 '클래식 향연'

광주문화재단 '2026 목요일콘서트' 10월까지 전문예술단체 12곳 무대 오페라 아리아·금관5중주 등 선배

일상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만나는 '2026 목요일콘서트'가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찾는다. 오페라 아리아와 성악, 금관 5중주, 색소폰 앙상블까지 다른 색깔의 전문예술단체들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무대를 채운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2026 목요일콘서트'를 연다. 목요일콘서트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사하고 지역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문화재단의 대표 상설 공연이다. 올해는 클래식 공연을 중심으로 12회 운영하며, 이달에는 4개 전문예술단체가 매주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2일 바리오스의 '오페라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명화 속으로, 오페라의 선율을 따라'로 문을 열었다. 서양 명화와 오페라를 함께 감상하는 해설형 공연으로, 19세기 낭만주의부터 20세기 벨 에포크 시대에 이르는 파리의 사회 문화와 예술사조를 그림 속 장면과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가며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으로 노래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 보엠' 중 '그대의 찬 손'과 '내 이름은 미미', 비제의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파리를 떠나'와 '축배의 노래' 등 주옥같은 소개됐다.

무대에는 해설과 소프라노 김다소미, 소프라노 이하나, 테너 이영교, 바리톤 조형민, 피아니스트 이슬기가 올라 오페라를 보다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어 오는 9일에는 풍덩클래식이 '빛나는 사계(四季), 우리의 추억 여행-설렘, 정열, 그리움, 희망의 멜로디'를 무대에 올린다. 계절마다 쌓이는 기억과 감정을 성악곡으로 풀어내는 무대로,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줄리브리사사운드의 'Jolly-ful Jazz concert'가 펼쳐진다. 금관 5중주의 힘찬 연주와 재즈의 감성을 결합해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감성을 전한다. 23일에는 관악 피스색소폰 앙상블이 '4인 4색'을 마련한다. 클래식과 재즈,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색소폰 앙상블만의 사운드로 재해석해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광주문화재단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전체 관객의 20% 이상(약 20세 내외)을 광주 문화누리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공연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빛고을 시민문화관 누리집,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다미다미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의 062-670-7934.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줄리브리사사운드